

부안 공항에 전북 최초 마리나항 조성

전북도·부안군·네오넥스컨소시엄·대양산업건설·건일·해민중공업 업무협약... 2024년 완공 목표

전북도 최초의 마리나항이 해상경관 및 입지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부안 공항에 조성된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부안군청에서 (주)네오넥스컨소시엄 등 3개 기업과 부안 공항 마리나항 조성으로 전북권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와 (주)네오넥스컨소시엄, (주)대양산업건설, (주)건일, (주)해민중공업 대표가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 해양레저관광산업 저변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도 참석,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부안군과 (주)네오넥스컨소시엄은 공항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787억원의 투자계획에 대한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부안군청에서 (주)네오넥스컨소시엄 등 3개 기업과 부안 공항 마리나항 조성으로 전북권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부안군과 (주)네오넥스컨소시엄은 공항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787억원의 투자계획에 대한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공항 마리나항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71-8일대 주변에 마리나항과 크루즈호가 접안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올해부터 마리나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항마리나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권 해양레저 기반 구축과 고부가가치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공항 마리나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해양레저관광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설맞이 전북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

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지사인증상품 등 판촉 추진

전북도가 신축년(辛丑年) 설 명절을 맞아 전북상품 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이 우수한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 대표상품의 판촉 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전북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전북 우수상품관 3개소(한옥마을, 전주롯데백화점, 수도권 용인점) 및 롯데몰 군산지점, 롯데백화점 청원점과 우체국 소품몰을 통해 설맞이 전북 우수상품 2,600여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한과선물세트와 한우, 전동주, 도라지청, 치즈, 편강, 전통 장류 등 '도지사인증상품'과 한돈, 과일, 건강식품을 포함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 우수상품 331개사 2,600여개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북우수상품관에서는 일부 품목을 정상가보다 10~20%, 우체국 온라인 소품몰을 통해서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대면 쇼핑 선호 추세를 반영, 온라인쇼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체국 소품몰에서 도내 중소기업 331개사가 참여해 가격 할인, 모바일 할인, 쿠폰 발송, 무료 배송 등 전북 우수상품 설 맞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 자립·안정적 정착 돕는다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 모집... 대상 분야 확대·중위소득 완화

전북도가 도내 주력산업 종사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마진 시범사업(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2019.8~2020.7, 431명) 분석 결과, 참여 청년의 95.7%가 지역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조사됐으며, 타 기업 취업, 이직준비, 육아 등으로 지원 중단자(44명)를 포함해 참여자 전원이 도내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공사업과 비교해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올해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기존의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임업·어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소득수준도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하고, 지급 대상은 두 배로 늘려, 1,000명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의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

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2003년생~1981년생)으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d.jb.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접수 기간은 2일부터 21일 24시까지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시·군별로는 전주 340, 군산 145, 익산 155, 정읍 50, 남원 40, 김제 50, 완주 50, 진안 20, 무주 20, 장수 10, 임실 20, 순창 40, 고창 30, 부안 30명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행산업(도박, 복권)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 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 도내 한정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수도권 등에 비해 열악한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전북도의 기반산업을 이끄는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삶의 주체로서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1면에 이어... 환황해 해양문화·수산경제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

정부는 2030년까지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개선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전북도가 건의한 53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하고,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수질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통합물관리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해 유역별 오염도 및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예측을 통해 수질개선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오염원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4개 시·군, 7개소에 49억원을 투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41개소, 하수관로 37개소 등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현업축사 8만6,000㎡ 매입(138억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휴폐업축사 1만3,000㎡ 철거(4개 시·군, 12억원)와 바이오순환림 5,000㎡ 조성(5억원) 등으로 축산오염원 제거에 노력할 방침이다.

▲수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활력있는 어촌 건설

올해 처음으로 약 5천여가구에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도서 지역의 900여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상향 지원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주민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 존속의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5개 사업(인공어초 설치, 어초어장관리, 고창 연안바다목장 조성,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 산란식장 조성)에 48억원을 투입,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종자 625만 마리를 방류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한다.

근해안강망과 연안개발안강망에 신규사업으로 해양 포유류 탈출망과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노후 어도 4개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바다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부표 2천개를 보급하고, 김 재활처리제(유기산) 456톤 공급과 함께 내수면 양식장 15개소에 경사스크린을 지원(3억원)해 오염원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인 양식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분야 3개 보험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지원 규모와 품종을 확대해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경영손실을 보

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소형어선 안전 장비와 사고 예방시스템을 보급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태풍 내습시에 소형어선 730척의 육상인양 비용을 지원해 어업인 재산피해를 미리 방지한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을 재생하기 위해 노후 어항 14개소에 515억 원을 투입,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차도선 운항을 시작한 방축도항에 경사식 선착장을 새롭게 조성한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글로벌 항만 도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12억원을 투자,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연안 입구에 따른 바다환경을 훼손하는 평상이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투자해 우리 연안 양식장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으로 올해는 부안군 격포지구 뿐 아니라, 군산시 연도지구까지 총 2개소에 17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닷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신규사업으

로 어촌마을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4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 유일의 국제 교역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군산항 홍보를 위한 포트 세일을 민·관 합동으로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항만시설부지의 특화개발을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 및 증가는 해외 전자상거래물류 확보를 위한 통관장 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을 미래지향적인 종합복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에는 744억원을 확보해 진입도로, 접안시설 등 1단계 주요 기반시설을 모두 착수해 2025년까지 2선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4개월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대회 개최 등 해양레저 기반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동목 도 새만금해양수산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북형 뉴딜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생태문명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과 해양수산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리어케어'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